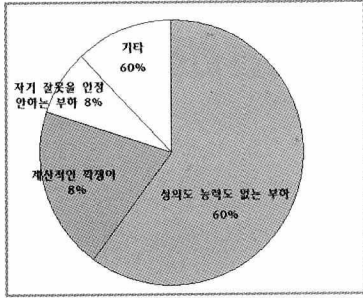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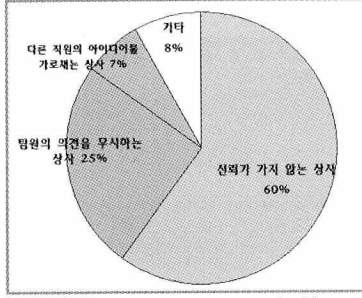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세상 이야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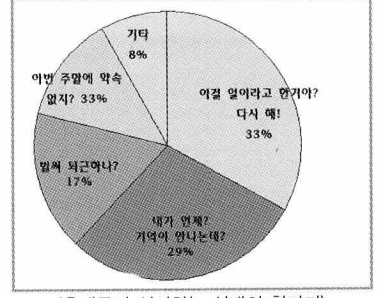
이런 선 · 후배 정말 싫어!



〈선배들이 싫어하는 후배유형〉



〈후배들이 닳고 싶지 않은 선배유형〉



〈후배들이 싫어하는 선배의 한마디〉

“왕따” 혹은 “따돌림”이라는 말이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된지 이미 오래다. 학교에서 시작된 아이들 간의 집단 따돌림으로 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받거나 심하면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을 신문이나 뉴스로 심심치 않게 듣고 있는 현실이다. 직장에서는 어떻게? 직장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은가? “어디를 가나 꼭 그런 사람 한두 명은 있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 금융회사에서 직장인 1,320명을 대상으로 직장선배들이 가장 싫어하는 후배의 유형과 반대로 가장 닳고 싶지 않은 선배의 유형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였다.

■ 이런 후배 정말 싫다.


설문 결과 ‘내 자식이 커서 이런 후배 닳을까 무섭다’, 즉 상사들이 싫어하는 부하유형으로는 ‘성의도 능력도 없는 부하직원’이 60%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손해 보지 않으려는 계산적인 짝쟁이’ (20%), ‘절대 잘못을 인정 안하는 고집쟁이’ (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런 말 들은 적 없는 것 같은데요’ (44%)가 선배들을 가장 미치게 하는 말로 조사됐고 ‘아, 그거요? 무슨 일든 잘 잇는 후배(28%), ‘집에 일이 있어서’, ‘몸이 아파서’ (20%) 등의 핑계를 대는 후배들도 선배

들을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배의 이런 행동, 정말 참기 힘들다’라는 질문에서는 ‘일하나 시키면 열 번을 물어보는 후배’ (27%), ‘상사에 대해 여기저기 말을 옮기고 다니는 후배’ (23%)를 가장 싫어한다고 응답했다.

■ 이런 선배 정말 싫다.

반대로 후배들이 가장 닳고 싶지 않은 선배들의 유형으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신뢰가 가지 않는 상사’ (60%)가 압도적인 비율로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팀원의 의견을 절대로 반영하지 않는 유형’ (25%), ‘다른 직원의 성과나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상사’ (7%) 등도 후배들이 꺼리는 선배들의 모습이었다.

‘후배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선배의 한마디’는 ‘그걸 지금 일이라고 한 거야? 다시 해!’ (33%)가 1위였고, ‘내가 언제? 기억 안 나는데?’ (29%), ‘별써 퇴근하나?’ (17%), ‘이번 주말에 약속들 없지?’ (1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회식자리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상사의 유형으로는 ‘술주정하는 상사’ (36%), ‘회식자리에서 업무 이야기만 하는 상사’ (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 하나금융그룹